

http://dx.doi.org/10.17703/JCCT.2019.5.3.125

JCCT 2019-8-16

언어표현 기반의 북미 정상회담에 관한 한미 신문사설의 비교

A Comparison between Korean and English News Editorials with Focus on U.S.-North Korea Summit Based on Expressive Language

노보경* , 반현**

Bokyung Noh*, Hyun Ban**

요약 2019년 하노이에서 열린 제 2차 북미회담은 공동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결렬되었다. 본 논문은 마틴과 화이트(2005)의 평가어 체계를 근간으로 총 8개의 사설들, 구체적으로는 4개의 주요 미국 언론들의 사설들과 4개의 한국 언론들의 사설들을 평가어들을 포함한 언어적 표현들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뉴욕타임즈, USA투데이, 워싱턴 포스트, 월스트리트 저널의 사설들 중 월스트리트 저널을 제외한 3개의 언론들은 모두 회담 결렬의 원인을 트럼프 대통령 개인으로 귀속시키며 부정적 평가어로 입장을 전달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4개의 신문 사설에서는 한반도의 비핵화나 평화에 대한 우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았다. 반면 한국의 언론들은 모두 회담 결렬의 원인보다는 향후 방향에 대해 중점을 두고 있었는데, 두 언론은 부정적 행위평가어를 이용하여 문제점과 우려를 제기했지만, 다른 두 언론은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향후 대응과 입장에 중점을 두었고 부정적 평가어보다는 당부와 조언의 언어적 자원을 활용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를 통해, 담론 소비에 있어 양국의 언론들은 각자의 입장을 전달하는 데 있어 부정적인 평가어를 선호한다는 점, 그리고 기대와 당부를 전달할 때는 평가어보다는 보조 용언과 같은 언어적 표현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주요어 : 한국 신문, 미국 신문, 사설, 언어표현, 2019 북미 정상회담

Abstract This research is about alternative measure of main components for sprinkler system like automatic wet pipe sprinkler system, dry pipe sprinkler system, pre-action sprinkler system, vacuum sprinkler system, deluge sprinkler system, and so on. By replacing the alarm check valve, dry valve, pre-operated valve, and deluge open valve with a solenoid valve, it can be simplified the various processes of the manufacturing process into one process, it creates an environment in which one standardized product can be produced simultaneously on a single machine. Therefore, it could improve the price competitiveness of products, reduce the maintenance cost, and help the adaptability of new sprinkler systems in the future. There is a benefit when it comes to apply to sprinkler system. Only replace the valve which is used to control primary and secondary valve such as wet, dry, pre operated, vacuum, deluge system valve. Other components such as retarding chambers, automatic air compressors, accelerators or adjusters, supervisory panels, vacuum pumps, and manual starters can be used as they are, so they can be easily applied to existing sprinkler system. It is needed to legal and institutional study for solenoid valve applied sprinkler system to commercialize.

Key words : Work preference, creative leadership, self-efficacy, nursing students

*정회원, 서울외국어대학원대학교, 한영통역번역학과 (제1저자) Received: May 23, 2019 / Revised: June 18, 2019

**정회원, 인천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신저자)

Accepted: July 08, 2019

접수일: 2019년 5월 23일, 수정완료일: 2019년 6월 18일

*Corresponding Author: jamesban@naver.com

게재확정일: 2019년 7월 8일

Dept. Mass Communication, Incheon National University

I. 서론

언어표현은 글쓴이가 느끼는 감정, 사고, 판단, 평가 등을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특히 담화구조에서 평가어라고 불리는 언어표현들은 특정 사건에 대한 언론사의 관점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외신기사를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담론 소비자들이 담론의 관점을 얼마나 제대로 파악하느냐에 있다. 담론 주제가 특정 틀 안에서 담론을 제시하게 되면 담론 소비자들은 자신의 관점에서 담론의 틀을 재성정하여 의견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게 된다. 즉, 하나의 담론의 틀이 조정되면서 새로운 담론소비자의 틀 속에서 이해조정은 이루어지고 그러한 과정에서 언어표현은 가교역할을 한다. 정보매체 발달이 이루어진 요즘 이러한 담론관점과 분석은 중요하다. 비대면 대화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문자화로 된 정보전송에서의 언어적 표현의 역할은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 신문 사설은 담론 생산자의 사고와 논리를 표면적으로 드러내는 척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van Dijk, 1996)[1] 신문사설은 특정이슈에 대한 언론사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는 공간이 되어 해당 언론의 담론 기술 및 방식을 뉴스소비자들에게 인식시키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논문은 2019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렸던 제 2차 북미회담에 대한 미국언론과 한국언론의 사설들에 실린 언어표현들을 분석함으로써 담론 주제의 설정과 전개 방식을 분석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1차와 2차 북미회담

2018년 한반도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2018년 4월 30년 만에 남북정상회담이 이어졌고, 그 이후 최초로 6월 북미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서 한반도의 비핵화 무드가 무르익었다. 2018년 6월 12일 도널드 트럼프와 김정은은 싱가포르에서 가진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북한의 평화체제 보장, 북미 관계 정상화 추진 및 6·25 전쟁 전사자 유해송환 등 4개 사항에 동의한 합의문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후속 회담으로 이루어진 하노이에서의 2차 북미정상회담은 별 소득이 없이 끝났다. 당초 2차 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조치를 담은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이틀째 회담에서 '제재 완화' 등을 둘러싼 양측의 합의가 결렬되면서 결국 하노이 회담은 실패로 끝이 났다. 선비핵화 후 경제적 제재완화를 외친 미국과, 선 제재완화와 후비핵화를 주장한 북한측이 서로간의 입장을 양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정상회담 앞서서 여러 차례의 실무회담동안 이런저런 뉴스거리들이 소비자들에게 보도되긴 했지만 하노이의 2차 정상회담이 완전한 실패로 끝날 것이라는 언론보도는 거의 전무했기에 이러한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미국 언론의 공식 사설들을 통해 이러한 결과에 대한 언론사들의 입장과 분석을 살펴보고, 이를 한국언론들의 입장을 비교 분석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분석척도의 객관성을 위해 마틴과 화이트(Martin & White, 2005)[2]의 평가어 체계(appraisal theory)를 근간으로 평가어들을 중심으로 언론사들의 사설들을 분석하기로 한다.

2. 언어 표현과 평가어

뉴스 담론은 언어적 자원을 토대로 만들어진 서사이다. (van Dijk, 1996). 그리고 담론 소비의 주체는 뉴스 소비자들이지만 이러한 담론 소비의 기본적 틀을 제공하는 것은 언론사이다. 특히 신문사설처럼 개인의 의견을 정당하게 노출할 수 있는 공간에서는 언어표현, 특히 이러한 평가어 기반의 분석이 객관적인 토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뉴스 담론의 평가적 기준이 되는 언어들은 주로 평가어이지만 평가어로 분류되지 않은 언어적 표현들도 담론 분석에 포함한다는 점을 밝혀둔다.

우선 평가어는 비단 사설들뿐만 아니라, 선거, 국가간 정상회담, 재난 및 위기 사건 보도 등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어 기자들의 관점을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Liu & Stevenson, 2013)[3]; Haney & Tator, 2002[4]; Noh & Ban, 2017[5]). 따라서 본 논문은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은 최근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주제인 만큼 이에 대한 보도 분석을 평가어에 중심을 두고 분석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근간이 되는 이론적 틀로 활용되는 마틴과 화이트(2005)의 평가어 체계는 태도(attitude), 개입(engagement), 강도(gradation)를

큰 틀로 구성된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태도이다. 태도는 세부적으로 감정, 사물, 행위 평가로 구분되는데, ‘감정평가’란 사람, 사물, 현상에 대한 감정적 반응을, ‘행위평가’는 사회문화에서 받아들여지는 보편적 행위들을 정상성, 충실성, 그리고 능력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반면, 사회적 비난의 대상의 경우에는 진실성 혹은 윤리성에 기준을 두어 판단한다. 사물평가도 부정/긍정적 반응, 구성 구조에 대한 평가, 혹은 가치평가 등으로 세분화된다. 두 번째 요소인 개입은 공간 축소와 공간확대로 나누어지는데 공간축소란 상대방의 의견이나 사고의 개입을 최소화시키는 것이며 공간확대는 판단을 유도하는 등 다른 가능성에 대한 여지를 남겨두는 의사 표현을 의미한다. “이 교수에게 여러 차례 입장을 물어보았지만 묵묵부답”(KBS뉴스, 4월 15일, 2019)[6]에서 ‘묵묵부답’이란 판단을 유보하는 언어적 표현에 속한다, 반면에 ‘27일 거듭 대선 출마 가능성을 일축했다’고 밝히며 북당설을 일축했으며“(뉴스 1, 7월 27일, 2019)[7]에서 ‘일축’은 다른 부정이나 가능성을 배제하는 표현으로 독자들의 개입을 축소하는 표현에 해당한다. 마지막 요소인 ‘강도’는 세기와 조절의 특징을 가지는 것으로 이러한 언어적 태도는 주로 부사로 나타난다.

본 논문은 앞서 언급한 2차 북미회담에 대한 미국언론과 한국언론의 사실들에서 평가어 체계에 주목하면서 언론사들의 입장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북한과의 이슈를 바라보는 한국언론과 미국언론의 입장들을 비교함으로써 담론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잣대를 제공해 보고자 한다.

III. 한미 신문사설

1. 미국 주요 언론의 사실 분석

제 2차 북미간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된 후 다음날 주요 언론들은 일제히 정상회담 결렬원인에 대한 분석내용을 사설에 실었다. 특이하게도 언론의 성향, 즉 친정부 혹은 반정부, 진보 혹은 보수와 상관없이 모든 언론은 일제히 도널드 트럼프의 외교능력을 평가절하했다. 이것은 평가어 체계에 따르면 평가에 해당한다. 먼저 워싱턴 포스트에 실린 사설을 살펴보자. (2월 28일, 2019)[8]

- (1) a. The president supposed that his personal and improvisational diplomacy, featuring unwarranted and unseemly flattery of a murderous tyrant, would make possible the substantive steps toward disarmament
- b. The failure of President Trump’s summit with Kim Jong Un revealed the fundamental weakness of Mr. Trump’s strategy for addressing the growing nuclear threat from North Korea.

(1a)는 감정평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감정을 드러내는 평가어를 사용하고 있다. ‘improvisational’(즉흥적),unwarranted(부적절한), ‘flattery’(아부성의)와 같은 어휘들은 트럼프 개인에 대한 부정적 평가에 해당된다. 즉, 이러한 트럼프 개인이 가진 성격과 태도가 비핵화로 가는 후속단계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1b)는 ‘weakness’(약함)과 같은 사물에 대한 평가어로 트럼프의 전략이 근본적으로 취약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 사설은 다음과 같이 계속 이어진다.

- (2) a. But it now ought to be clear that the president’s shallow and slapdash attempts at dealmaking are not going to succeed.
- b. He declined to say whether He would still demand complete denuclearization before lifting sanctions.

(2a)도 감정평가에 해당되는 ‘shallow’(얕은), ‘slapdash’(성급한)와 같은 평가어를 통해 트럼프의 인성을 문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declined to say(언급을 회피했다)는 판단을 유보한 것으로 개입에서 공간확대에 해당된다.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다른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함으로써 트럼프에 대한 입장에 대한 독자들의 개입을 확대시키고 있다. 다음은 USA 투데이에 실린 일부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9]

(3) a. Perhaps Kim, sensing weakness in his American counterpart, overreached.

b. Here was an embattled U. S. president,..-a self-styled master deal-maker, looking to demonstrate he alone could solve intractable problems.

(3a)와 (3b)도 하노이 회담의 실패를 트럼프 개인의 성품에 기인할 것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weakness’(약함), 그리고, ‘self-styled master’(자칭 최고) 등은 모두 트럼프 개인에 대한 감정평가이다. 그리고 그러한 약점 때문에 김정은이 과도한 행위(overreach)를 할 수 있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뉴욕타임즈는 트럼프 개인에 더욱 혹독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10]

(4) a. How the Trump-Kim Summit Failed: Big Threats, Big Egos, Bad Bets

b. President Trump bet on the force of his personality, as his self-image as his consummate deal-maker.

(4a)는 ego(자존심이 감함), 그리고 bad bets(잘못된 판단)이라는 평가어들을 통해 트럼프에 대한 감정적 평가와 상황평가를 제시하고 있다. (4b)의 ‘consummate’(뛰어난)은 트럼프 개인에 대한 부정적 평가에 해당한다. 즉, 트럼프가 자신이 최대의 해결사라고 우쭐하여 오히려 회담실패를 가져왔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월스트리트 저널은 유일하게 공식 사실을 통해 트럼프의 행동이 정당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11]

(5) a. So it is encouraging that the U. S. enforced sanction this week

b. North Korea’s sanctions evasions are sophisticated and persistent.

(5a)에 나타난 것처럼 ‘encouraging’(고무적인)을 통해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물평가어를 이용하였으며, (5b)에서처럼 트럼프에 대한 긍정

적 평가보다는 김정은에 대한 부정적 감정 평가어, ‘sophisticated’(교묘한), ‘persistent’(집요한)를 사용함으로써 하노이 회담결렬이 옳았음을 우회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2. 한국 주요 언론의 사실분석

위에서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월스트리트 저널이외의 대부분이 하노이 회담의 결렬이 트럼프의 개인적 성격과 역량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한국의 언론들은 회담 결렬의 원인보다는 향후 대응전략 및 태도를 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보수언론과 진보언론의 사실들은 극명한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다. 우선 보수언론으로 분류되는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이러한 회담 결렬이후 한미 관계의 균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 a. 개성공단 재개를 주장하는 것은 한·미 공조에 균열을 초래할 수 있다. (중앙일보, 3월 18일)[12]

b. 어떤 경우든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한·미 동맹의 파열음을 막는 기회가 되기를 바랄 뿐이다. (조선일보, 4월11일)[13]

더 나아가서 조선일보는 이번 결과이후의 정부정책에 대한 태도를 극명하게 비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 a.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청와대의 상황 인식이 국민을 더 걱정스럽게 만든다.

b. 그로부터 몇 시간 만에 미·북 회담은 결렬되었다. 김칫국을 마셔도 정도가 있다.

c. 안보 문제는 현실에 발을 딛고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이념이나 이상, 환상은 뜬구름에 불과하다.

위의 예문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조선일보는 안일한 정부의 인식과 예리하지 못한 판단에 대한 불신을 ‘걱정스럽다,’ ‘김칫국을 마시다,’ ‘뜬구름에 불과하다’ 등의 행위평가어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행위평가는 감정평가보다 객관적인 상황에 대한 판단이라는 점에서 보다 타당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 온다.

반면 진보언론으로 분류되는 경향신문은 이번 회담이 결렬되었지만 향후 논의과제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14]

- (8) a. 한반도 대전환의 여정에 제동이 걸린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 b. 문재인 정부도 협상의 모멘텀을 살리려는 중재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8)에 나타난 것처럼, 이번 회담 결렬에 대한 평가를 ‘유감스럽다’는 사물평가어를 활용했다. 그러나 한반도평화라는 대의를 위해서는 북한과 한국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아야 한다’의 보조 용언을 활용한 ‘아끼지 말아야 한다’를 활용함으로써 정부에게 당부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겨레신문도 이와 유사한 입장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15]

- (9) a. 북-미 합의를 위해 오랫동안 공을 들여온 우리 정부도 예상치 못한 결과에 충격이 클 것이다. 그러나 마냥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
- b.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협상의 중재자이자 촉진자로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이 상황에 개입해야 한다.
- c. 그 경험을 살려 협상을 다시 궤도에 올리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9a)에 나타난 것처럼, 회담 결렬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충격이 크다’라는 감정평가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동안의 정부의 노력에 대한 행위평가어인 ‘오랫동안 공을 들여오다’를 이용하여 정부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하면서도 향후 회담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당부를 하고 있다는 점을 ‘-해야 한다,’ (노력을 다해야 한다, 개입해야 한다), 그리고 ‘-서는 안 된다’(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당위성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전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국언론과 미국언론 사설의 평가어 사용을 비교하자면, 미국과 한국의 주요언론 사설들은 북미대화 결과를 논의할 때 태도평가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지만, 미국 언론들은 감정평가어들을, 반면 한국의

언론들은 행위평가어들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주요 평가어들을 중심으로 비교한 도표이다.

표 1. 미국언론과 한국언론 사설에서의 평가어 비교
Table. 1. The Comparison between US and Korean Editorials based on Linguistic Expressions

	감정평가어	태도평가어
미국 사설	flattery, slapdash, self-styled master, sophisticated, bad, unwarranted improvisational weakness	bad bet
한국 사설	충격이 크다, 유감스러운	뜬구름, 동맹파열, 동맹균열, 오랫동안 공들여 오다, 김칫국

IV. 결론 및 제언

본 논문은 미국과 북한의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미국의 주요 언론들 (뉴욕타임즈, USA 투데이, 월스트리트 저널,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의 공식 사설들을 분석하고, 한국의 주요언론들 (조선일보, 중앙일보, 경향신문, 한겨레)의 사설들을 각각 분석한 후, 한미 사설들을 비교하였다. 담론의 틀과 논조는 담론 소비자들의 가치관과 사고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Ban & No, 2018)[16] 우선, 미국의 주요 일간지들의 경우,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의 행위보다는 북한에 대한 부정적 감정어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트럼프의 결정을 지지하고 있지만, 나머지 3개의 주요 일간지들은 모두 트럼프 대통령의 인성에 대한 감정평가어들을 이용하여 회담이 결렬된 것으로 비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한국의 언론의 사설들 중 회담 결렬의 원인에 중점을 두는 대신 모두 향후 관계 및 전망에 무게를 실었다, 다만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이로 인한 한미동맹의 균열, 그리고 현 정부에 대한 입장을 부정적인 태도평가어로 전달하고 있지만,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회담 결렬에 대한 아쉬움에 대해서는 감정적 평가를, 그러나 향후 대응에 대해서는 평가어를 사용하기 보다는 ‘-해야 한다,’ ‘해서는 안 된다’ 등 보조적 어미를 활용하여 부탁과 당부를 전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은 크게 네 가지의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첫째, 미국 언론의 사설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북한의 비핵화보다 이번 회담의 결렬의 원인에 중점을 두는

반면, 한국 언론의 사실들은 향후 한반도 정세에 중심을 두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대부분의 미국 언론은 이번 회담을 트럼프 대통령의 인성과 외교 전술의 미숙함을 보여주는 일종의 일화로 격하시킴으로써, 이번 회담을 정치적으로만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한국의 언론들은 크게 두 가지의 논점으로 귀결될 수 있다. 두 보수 언론들은 이번 회담 이후 정부의 부족함을 지적하며 향후 대책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지만, 다른 두 진보 언론들은 이번 실패를 교훈 삼아 더욱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이끌어내자는 내용을 실고 있었다. 따라서 후자의 언론들은 평가어보다는 당부, 부탁, 당위성 등의 의미를 내포하는 어미들을 활용하는 언어적 표현을 주로 활용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양국의 언론들은 긍정적 평가보다는 부정적 평가를 통해 자신의 입장과 판단을 전달하는 경향이 많다는 점, 그리고 평가어보다는 조언과 당부의 말을 전달할 때는 평가어대신 어미활용을 통한 의지와 바람을 전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결과와는 담론 소비에 있어 담론소비자들이 논평과 사실을 이해할 때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하는 데에 기준을 제시해 주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본 분석은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이라는 소재라는 제한 속에서 도출한 결론이라는 한계점을 가진다. 따라서 향후에는 연구 범위와 자료들을 확대하여 양적 질적으로 타당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평가어와 담론소비자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References

- [1] van Dijk, T.A. "Discourse, Power and Access", in C.R. Caldas-Coulthard and M. Coulthard (eds) *Texts and Practices: Readings in Critical Discourse Analysis*, pp. 84 - 104. London: Routledge, 1996.
- [2] Martin, J. & White, P. *The Language of Evaluation: Appraisal in English*,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5.
- [3] Liu, L. & Stevenson, M. D. "A cross-cultural analysis of stance in disaster news reports," *Australian Review of Applied Linguistics*, Vol. 36 No. 2, 2013, pp. 197 - 220.
- [4] Haney, F. & Tator, C.. *Discourse of dominaton: racial bias in the Canadian English-language press*: University of Toronto Press, 2002.
- [5] Noh, B. K. & Ban, H. "Ideological Discrepancies in News Media: Focusing on the 2016 U.S. Presidential Election."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JCCT)*. Vol. 3 No, 4, 2017.
- [6] Nose bleeding just before death--A strange experiment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KBS News*, April 15, 2019.
- [7] No bid for president, Never run for president. *News 1*, July 27, 2019.
- [8] The Hanoi summit failure exposes Trump's weak diplomacy, *The Washington Post*, Feb. 28, 2019.
- [9] North Korea summit: Flattery got Donald Trump nowhere with Kim Jong Un, *USA Today*, Feb. 28, 2019.
- [10] How the Trump-Kim Summit Failed: Big Threats, Big Egos, Bad Bets, *The New York Times*, Feb. 28, 2019.
- [11] Seizing North Korea Where It Hurts, *The Wall Street Journal*, May 9, 2019.
- [12] The Korean government keep the same strategy toward North Korea even at the failure of U.S and North talks. *JoongAng-Ilbo*, March 18, 2019.
- [13] The President and the first lady visit the US together at the Korea-U.S. summit, *Chosun-Ilbo*, April 11, 2019.
- [14] The sad failure of the U.S and North talks, but hope is still alive. *Kyunghyang*, Feb. 28, 2019.
- [15] A surprising event: the failure of the U.S. and North talks, but the Korean government need to bridge between the two countries to move forward. *Hankyoreh Shinmun*, Feb. 28, 2019.
- [16] Ban, H. & Noh, B. K. "The Role of Evaluative Language in News Translation: Focusing on Soft and Hard News."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IJACT)*. Vol. 6 No, 2, 2018.

※ 본 논문은 인천대학교 2018년도 자체 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